

■광주 프랑스문화원 근무 마치고 떠나는 비르지니 실바 씨

“情 넘치는 광주 잊지 못할 거예요”



2년간 매일 '사랑의 식당'서 봉사
광주만의 문화 계승·발전 됐으면

“광주는 고향 같은 곳이라서 꼭 다시 돌아오고 싶어요.”
지난 2년 동안 광주 프랑스문화원에서 강사로 활동하고 오는 29일 프랑스로 돌아가는 비르지니 실바(23)씨는 정들었던 광주를 떠나는 느낌을 이렇게 표현했다.
프랑스 정부와 가톨릭 선교단체인 파리와방 선교회가 공동으로 펼치는 봉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난 2005년 한국에 온 실바씨는 프랑스문화원에서 불어를 가르치는 일 외에 매일 광주공원 인근 소외노인들의 무료 급식처 '사랑의 식당'에서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처음엔 '~당께', '그리고' 등 할머니, 할아버지의 말을 이해할 수 없어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 덕에 지금은 농담을 주고받을 정도로 한국어 실력이 늘었어요.”
프랑스에서 언어학으로 대학을 졸업한 실바

씨의 한국명은 임순수. 이름 '비르지니'가 '순수하다'는 뜻이고, '실바'는 '숲(林)'을 의미한 데서 따온 것이다.
실바씨는 “한국인들에게는 '순수'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게 더 좋다”며 “한국에 오기 전 수저 드는 방법도 몰랐지만 친구들이 하나 둘 생기면서 광주 생활이 익숙해졌다”고 말했다.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것”이 꿈인 실바씨가 광주를 특히 좋아하는 것은 정이 넘치는 광주 '사람들' 때문이라고 한다. 서울에서 느끼는 한국인과 광주 사람이 분명 다르다는 것이다.
“서울의 지하철에서 만난 한국인은 무표정한 얼굴로 쫓기는 듯한 인상을 받지만, 광주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좋아요. 서울에 있다 광주에 오면 고향에 온 듯한 느낌이죠.”
실바씨는 한국에 있는 동안 인터넷 강의를 계속하고 '한국인의 불어 발음'과 관련한 논문

을 써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프랑스에 가면 발음교정사 공부를 할 계획이다. 장애인이나 아이들에게 봉사도 할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이다. 정 많고 사람 좋아하는 '순수'한 마음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실바씨는 “이젠 프랑스에서 만나는 한국 사람들을 그냥 지나칠 수 없을 것 같다”며 “계획했던 공부를 마치고 기회가 된다면 한국에, 특히 광주에 다시 올 생각”이라고 말했다.
올 초부터 교재를 시작한 한국인 남자친구 때문에 프랑스행 비행기를 타는 마음이 더욱 무겁다는 실바씨는 “광주가, 광주사람들이 자기의 문화를 잊지 않고 계승·발전했으면 좋겠다”며 “문화만큼 큰 재산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사진=고경석기자 ksgo@kwangju.co.kr

“하리수는 한국 性 혁명 상징”

프랑스 일간지 한면 통째 장식

트랜스젠더 가수 겸 배우 하리수가 프랑스 일간지 리베라시옹 지 21일자에서 한면을 통째 장식했다.
리베라시옹은 'Lady Lee'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하리수는 2002년 말 한국 법원으로부터 여성으로 성전환에 대해 인정을 받았다”는 내용과 “나는 줄곧 여자였고 마침내 진짜 여자가 됐다”는 하리수의 인터뷰 내용을 함께 보도했다.



리베라시옹은 유교국가였던 한국에서 하리수가 성(性)혁명의 주인공이며, “조용한 아침의 나라”에 파문을 일으켰다고 전했다. 신문은 또 하리수의 “여전히 보수 성향이 강하게 남아 있다.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고 싶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 외에도 이 신문은 하리수가 고교 시절 처음으로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을 하게 되었던 과정과 일본으로 건너가 성전환 수술을 받은 전후의 과정 그리고 연에게 대비해 현재 한국과 중국 등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자세히 소개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미래 전남 영농인들 숨씨 빛났다

‘영농학생진전대회’ 4개분야 13개 종목서
금상 6명·은상 5명·동상 13명 입상 쾌거

전국 농업계 고교생들의 제1인 ‘한국 영농학생진전대회’에서 전남지역 학생 24명이 대거 입상 ‘실력전남’ ‘농도 전남’의 위상을 전국에 과시했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울산 자연과학고등학교에서 전국 1천여 명의 영농계 학생, 지도교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36회 한국영농학생진전대회’에서 전남 고교생들이 금상(6명), 은상(5명), 동상(13명)을 휩쓸었다.
전남 지역 영농학생 대표들은 식물 자원, 동물자원, 조정임업 등 4개 분야, 13개 종목에 참가해 농업유통과 조정임업, 가정과제 등에서 각각 이은경(광양실고)양과 노영재(고흥실고)군, 박민정(광양실고)양, 오창록(호남원예고)군 등이 금상을 수상했다.
금상을 받은 학생 중 일부는 해외연

수의 특전을 받았으며 입상학생들은 대입특별전형, 공무원 특채, 기업체 취업 등에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게 된다.
이 밖에 영농학생회 활동에 모범을 보인 윤혜립(호남원예고)양과 윤복현(전남생명과학고)교사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표창을 받아 오는 12월 선진 농업국가를 둘러볼 수 있는 해외연수 기회를 갖게 됐다.
또한 농업교육협회장상을 수상한 박노균(광양실고), 한명순(구례농고)교사와 김희경(광양실고), 진수환(구례농고), 조원근(고흥실고)교사에게는 해외연수의 특전이 주어졌고, 정석철(호남원예고)교사는 농림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한편 지난해 전남도 내 농업계 고교생 75명이 영농대회에 참가해 금상 2



광양실고 학생들이 '회취정식기술 시간'에 아생회를 이용한 장식 기법을 배우고 있다.

명, 은상 6명, 동상 2명 등 총 10명이 수상, 우수 학생 2명과 지도교사 2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전남교육청이 추진해 온 영농교육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농도로서 전남 농업교육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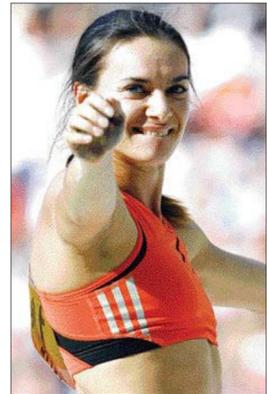
‘산악인 교수’ 김안중씨
서울대 교수협의회장에



일본에서 죽을 고비를 넘겼던 ‘산악인 교수’가 서울대 교수협의회 회장을 이끌게 됐다.
서울대는 김안중(63·교육학) 교수가 교수협의회 회장에 선출돼 2년 간의 임기를 시작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대 교수협의회는 1천800여명의 교수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분부 행정에 대한 건설적 비판자 역할을 해 ‘서울대 안의 야망’으로 불린다.
전문 등산학교에서 암벽·빙벽 등반 기술을 배울 정도로 산을 좋아하는 김 교수는 산악인 박영석씨 등과 함께 히말라야를 등정한 것으로 유명하다.

미녀세의 꿈은 IOC 위원

러 이신바예바 은퇴 후 포부 밝혀



다들달 3일 달구벌에서 펼쳐질 2007 대구국제육상대회에 참가하는 ‘미녀세’ 엘레나 이신바예바(25·러시아)가 은퇴 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에 도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28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골든 그랑프리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아시아 투어에 나선 여자 장대높이뛰기 챔피언 이신바예바는 “내년엔 세계기록(5m01)을 깨뜨릴 수 있다. 왜냐하면 알려지지 않은 많은 경쟁자들이 나를 추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은퇴하고 나면 IOC에 진출하고 싶다”는 의향을 내비쳤다. 남자 장대높이뛰기 불멸의 기록(6m14) 보유자로 세계기록을 35차례 갈아치운 세르게이 부부크(44·우크라이나)처럼 되고 싶다는 뜻이다.

56세에 토익 만점 中企사장 이태수씨

“시험은 공부를 하게 만드는 동기죠”



50대 후반의 중소기업 사장이 토익(TOEIC) 시험에서 만점을 기록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연매출 4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체를 운영하는 이태수(56)씨는 51세였던 2002년 10월부터 매일 시험에 응시했고 45번의 시험 끝에 지난 8월 실시된 토익에서 만점(990점)을 받았다. 토익의 문을 두드린 지 5년 만이다.
첫 번째 토익성적은 875점. 두 번째 시험부터는 매년 900점 이상의 고득점에 성공했지만 만점을 맞기는 그리 쉽지 않았다.
이씨는 만점을 목표로 하거나 문제집 대신 자신만의 독특한 공부 방법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영어소설 읽기와 물류회사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영문 이메일 교신을 적극 활용한 것.
그는 “독해력을 키우기 위해 지난 5년 동안 다빈치코드와 스타워즈 등 재미가 있는 포켓판 영어소설을 20여권 읽었다”고 말했다.
소설 속의 살아있는 영어를 자주 접하면서 영어에 대한 감각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씨는 또 “토익에 등장하는 업무매뉴얼과 근무평가서, 입사지원서 등은 실제 업무에서 그대로 볼 수 있는 실용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팔방미인’ 다니엘 헤니

영화 ‘마이파더’ 노래 이어 작사까지 참여



영화 ‘마이파더’의 음악 작업에 다니엘 헤니가 작사자로 참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영화 속 중요한 곡으로 사용된 ‘Diana’를 직접 부르면서 익히 알려진 노래 실력 외에 작사 능력까지 갖추면서 ‘완벽할 수 밖에 없는 남자’로 평가받고 있다.
그가 참여한 노래는 ‘Wake it up’이라는 곡으로 극중 제임스(다니엘 헤니)에게 사건건 시비를 거는 게이브와 한낮의 레이슬을 펼치는 장면에서 삽입됐다.

정몽준 축구협회장, 추석 연휴에 ‘홀인원’

정몽준 대한축구협회장이 추석 연휴에 홀인원을 기록해 화제다.
정몽준 회장은 한가위 연휴가 시작됐던 22일 경기도 고양시 뉴코리아 컨트리클럽에서 중견 언론인들 모임인 관훈클럽과 관훈클럽 신영연구기금 임원들과 골프를 치던 중 15번 홀(파3·170야드)에서 5번 아이언으로 티샷한 공이 홀컵에 그대로 빨려들어가 홀인원을 기록했다.
비거리가 300야드에 이르는 장타자로 알려져 있는 정몽준 회장은 함께 골프를 치던 이들에게 “10여년 전 남부컨트리클럽에서 처음 홀인원을 했고 이번이 두 번째”라고 말했다.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무료로 실어 드립니다. People@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34 FAX (062) 222-4938, 222-4918

화측

- ▲박양중(전남도청 행복마을과장)씨 장남 지훈군 이동수씨 차녀 선미양=10월 3일(수) 낮 12시30분 광주 성안교회. 962-4000
- ▲최기술(전 광주은행 본부장)씨 차남 정민(KBS 광주방송총국 기자)군 김철근씨 차녀 희경(정광고교사)양=29일(토) 오후 1시30분 KBS 광주방송총국 공개.

알림

-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인권상담=월~금 오전9시~오후5시, 국번 없이 1331
-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무료 급성교육 및 급성실천자 관리 실시=직접인 대상으로 흡연의 폐해·급성 필요성 및 방법 강연, 급연보조제 및 상담.문의 363-2240
- ▲호남해바라기 아동센터 무료 상담 및 의료·법률지원=성폭력 피해를 입은 13세 미만 아동 및 정신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긴급구조, 의료·법률지원 및 심리 치료 등 One Stop 서비스. 232-1375, http://forchild.or.kr
-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영아일시보호소 무료 상담=아동 일시 보호원하는 경우. 국내 입양 상담. 미혼모 상담 및 시설 입소 안내. 222-1095
- ▲홀트아동복지회 광주아동상담소 무료 상담=국내 입양 상담. 미혼모 상담(24시간 출장 상담도 가능). 미혼모 시설 입소 안내. 227-8877
- ▲비둘기 가정상담소 무료 상담

- =인터넷 및 전화 상담. 방문 상담은 예약제. 문의 652-1366, 434-1366 www.gene-korea.com
- ▲광주성영의 전화 무료 상담=24시 전화 상담 전국 공통 1588-9191, 광주 223-9191. 면접 상담은 월~금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들에게 상담을 통한 정서적 지지와 격려 등.
-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법률상담=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국번없이 132. 무료 법률 상담 및 법률구조. 면접 상담은 광주지부 검찰청 민원실 2층.
- ▲한국마사회 광주지점 무료 노래교실=매주 수요일 오후 2시. 한국마사회 광주지점 2층. 410-5000

동창·동문회

- ▲보성중 제 26회 동창회 체육대

- 회=10월3일(수) 오전 10시 교정. 016-670-2261
- ▲향우회
- ▲재광 고흥군 향우회(회장 최은재) 화합 한마당 잔치=10월3일(수) 오전 9시 호남대 생촌캠퍼스.
- 모집
- ▲황실 십자수 무료 수강생 모집=쿠션·액자·지갑·열쇠고리·휴대전화 줄 제작 등 무료 교육. 문의 512-4000, 528-8500
- ▲오치종합사회복지관 광주시 북구 지역 결혼이주 여성을 위한 무료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북구지역 결혼이주여성 30명. 한글·컴퓨터·집단 상담·미술 활동·명절 행사·가족 나들이 등 프로그램 무료로 진행. 문의 267-3700

- ▲광주사회복지시설 정신장애인 주간 프로그램 이용회원 모집=정신 장애인들에게 조속한 재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 이용 회원 모집. 무료. 정신의료기관에서 현재 약물 치료 중인 만 18세 이상 정신장애인. 문의 262-4379
- ▲민요와 장구 사랑 회원 모집=남도 서도 경기민요를 배울 사람 모집. 사회 봉사 활동에 뜻있는 희망자 환영. 019-601-6989
- ▲적십자사 수지침 봉사회 회원 모집=수지침 요법을 배워 사회 봉사에 참여할 분. 무료. 018-610-3360
- ▲청수 조기 축구회 회원모집=45~55세 매주 수·금·토·일요일 오전 7시부터 수창초 운동장 017-612-7695
- ▲초·중·고 과정 무료 학생·교사 모집=월~금요일 오후 7시~10시 30분 광주시 동구 계림동 사랑의 교실, 교사 모집(국어·영어·과학·사회·도덕 과정) 223-8529, 011-9712-4316
- ▲전도교 광주교구 시일식 봉행

-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광주 교당, 천도교 교인 및 동화에 관심있는 분 525-1391
- ▲한국웃음협회 회원모집=건강 회복과 웃음문화 보급을 위한 웃음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모임 016-607-1958
- ▲한국복지재단 전남가정위탁 지원센터 위탁 아동·부모 모집=친부모의 사랑·가출 등으로 일정기간 보호가 필요한 위탁 아동과 봉사 차원에서 아동을 양육해 줄 위탁부모 모집 061-279-1225~6

부음

고졸격! 저비용! 대형주차장! 정성껏 설치됩니다 -대표구제권- 금호장례식장 T.(062)227-4000 (법정외곽) 사전예약 하신 분께 사용료의 20%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광주에서 30분 아름다운 청계공원 기적남묘특별분양 (062)521-1100